光州日報

제18191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8년 10월 17일 (음력 9월 19일) 금요일

쌀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 광주 전남 정·관가 '술렁'

전남 '중복 신청' 농지 전국 최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2명과 고위 공무원 60~ 70명이 본인·가족 명의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전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상대로 전면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직불금 파문이 광주·전남 정·관가로 번지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감사원 감사결과 직불금 중복 수령자로 파악된 965명과 자체 적발한 부정수급 1천4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를 파악하고 있다.

16일 행안부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들을 상대로 오는 24일까지 전면 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대검찰청도 정부의 자체 조사가 끝난 뒤 법리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도는 이날 각각 자체 적발한 339건, 665건 등 1천4건과 감사원이 적발한 중복수령자 965명에 대한 자료를 일선 시·군·구에 보내 재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특히 직불금 부당 수령자 가운데 공무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해당 공직자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시·도는 이날 농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거주지 밖에 농지를 두고 있는 관외 경작자의 직불금 부당 수령 내역과 실제 경작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관가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술렁이고 있다. 본보가 광주·전남지역 광역 단체장 및 광역 의원, 기초단체장 등 98명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광주시의원 7명, 전남도의원 33명, 기초단체장 10명 등 모두 50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논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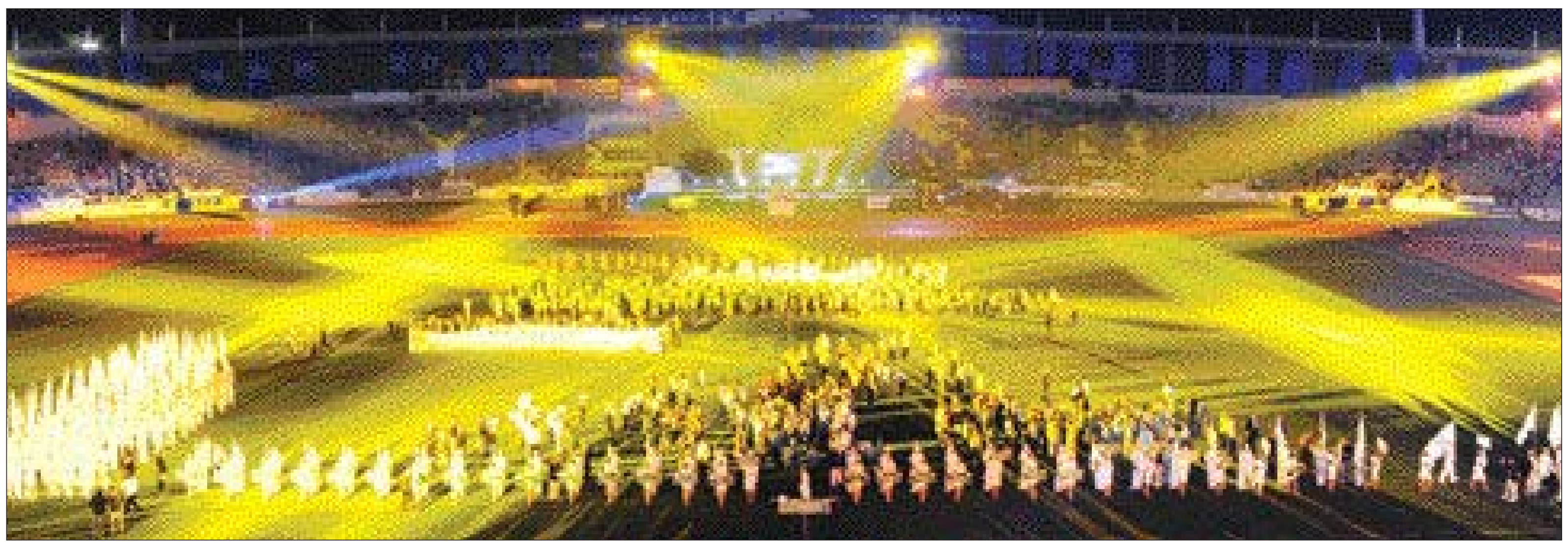
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20명 가운데 9명도 본인과 배우자 등의 명의로 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해걸(한나라당)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08년 쌀 직불금 신청필지 의심목록'에 따르면 전국 의심필지(22만6천23필지)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 각각 2천737필지, 2만7천748필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토지 소유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남의 경우 이미 경영이양 직불금을 수령받은 사람이 해당 필지에 대해 직불금을 '중복 신청'한 필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천108필지로 파악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본청을 포함한 자치구 공무원 가운데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람이 있는 지는 알 수 없다"며 "공무원의 부당 수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일선 자치구와 함께 철저하게 재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가자 남도로, 뛰자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지난 10일부터 열전을 벌인 제89회 전국체육대회가 16일 폐막됐다. 이날 여수 진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폐회식에서 여수정보고와 진성여고생 300여 명이 신해양시대에 큰 바다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전남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제 90회 대회는 내년 10월 대전에서 개최된다.
/여수=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국체전 폐막 … 한국新 42개 '풍성'

여수시를 비롯 전남지역 일원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체육대회가 내년 10월 대전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16일 7일간 열전의 막을 내렸다. 〈관련기사 20·22·23면〉

이날 오후 6시 여수 진남경기장에서 열린 폐회식에서 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는 한국신기록 42개 등 풍성한 기록이 쏟아졌고, 경기 운영면에서도 단 1건의 문제점이 없는 '클린대회'로 치러졌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포상금제도 등 우수선수 육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전남도민과 여수시민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열정을 다시 모아 4년 후 여수엑스포로 찬란히 부활해 해양문화를 창조하는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체전 개최지인 대전광역시 박성효 시장에게 대회기가 전달된 뒤 폐회선언과 함께 7일 동안 여수진남경기장을 밝혀왔던 성화가 꺼졌다.

이번 체전에서는 경기도가 8만3천421점을 획득해 서울(6만5천107점)을 따돌리고 대회 7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개최지 전남은 막판 경북의 추격을 뿌리치고 종합 3위(5만4천697점)를 차지했고 광주는 광주·전남 분리 이후 20년 만에 최고의 점수를 획득하는 선전을 펼쳤으나 당초 목표보다 한단계 내려간 종합 14위에 머물렀다.

/여수=최재호·박양규기자 lion@

코스피 사상 최대 126P 폭락

환율은 133.5원 폭등…금융시장 '충격과 공포'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옮겨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또다시 '패닉(공황)' 상태에 빠졌다.

〈관련기사 6·11면〉

주가는 사상 최대 폭으로 추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1년 만에 가장 많이 치솟는 등 시장이 공포감에 휩싸였다.

16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26.50포인트(9.44%)나 폭락한 1,213.78포인트로 주저앉았다.

이는 2006년 6월13일(1,203.86포인트) 이후 2년4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 또 이날 하락폭은 증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코스닥지수도 35.85포인트(9.19%) 떨어진 354.43으로 마감돼 올들어 가장 큰 하락률을 나타냈다.

또 이날 코스피시장에서는 오전 9시6분께, 코스닥시장에서는 오전 9시 33분께 각각 5분간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환율도 주가 폭락의 영향으로 폭등장세를 연출했다. 원 ·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133.50원 오른 1,373원으로 치솟았다.

이는 4거래일 만에 1,300원대에 복귀한 것으로, 이틀간 165원이나 뛰었다. 또 이날 상승폭은 지난 1997년 12월31일(145원) 이후 10년10개월 만에 최대치다.

이처럼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것은 세계 각국의 공조에도 불구하고 금융불안이 여전한 데다 글로벌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극심한 고용 부진과 내수·수출·투자 부진,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실물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조선산업·건설사 지원 방안 강구하라"

韓銀 광주·전남본부, 광주지방국세청 국감

현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수도권 편중정책이자 지역간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정책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4·10면〉

또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남해안 조선산업, 지역건설사 등에 대한 회생방안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과 박병석 의원 등은 1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 '5+2' 구상은 수도권 특혜, 영남 편중, 호남 소외 등 지역간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한은 광주·전남본부, 광주지방국세청 국감을 통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금융기관이 선수금 환급보증서(RG)를 직접 발급해 주거나 총액한도대출을 늘려주고, 광주지방국세청은 납기 연장·세무조사 면제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광주·전남지역에도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쌀 직불금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탈루할 수 있는 고리로 악용될 수 있어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양향우회
정기총회 및 화합 한마당 안내

풍성한 가을, 모든 것이 그리운 계절입니다.
광양의 후예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향의 포근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나누는 2008년 『광양향우회 정기총회 및 화합의 한마당』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모든 향우들이 뜻깊은 축제에 꼭 참석하시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귀중한시간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아 래

□ 일 시 : 2008년 10월 18일 (토) 10:30~16:30
□ 장 소 : 광주 북구 풍향동 광주교육대학교 다목적관
□ 연락처 : 사무국 011-603-9150

2008. 10.
재광주 광양향우회 회장 허 재 호